

## 내포신도시, 소통과 대화로 명품도시 만들기 힘 모은다

- 교육청, 경찰청, 수공 등 16개 기관 실무자가 참여하는 건설종합관리협의회 정례회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육청, 경찰청, 수공 등 16개 기관의 실무과장과 팀장 등이 참여하는 건설사업종합관리협의회를 금년도에 4번째로 12월 7일 도청사 현장 상황실에서 전병욱 도청 이전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였다.

분기별로 개최하는 건설사업종합관리협의회는 2012년말 도청, 교육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계획된 일정에 따라 이전할 수 있도록 공정을 완벽하게 관리하는 한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 간 정보공유 및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충남도가 총괄 조정하기 위하여 2010년 2월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는 제도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당초 로드맵에 따라 건설되고 있는 도청사(공정율 31%)와 부지조성공사(41%)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2010년도 말과 내년도 상반기 중에 발주할 교육청사, 경찰청사 공사추진 계획과, GS건설, 포스코건설, 롯데건설이 추진하는 하수처리시설,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집단에너지설치사업과, 상수도, 통신, 가스 등 지하매설물 설치에 따른 관련기관 간 공정일정 등에 대하여 16개 관련기관 실무책임자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되어 기관 상호간 소통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충청남도 관계자는 건설종합관리협의회는 2011년도에도 분기별로 개최하여 내포신도시 개발사업이 당초 로드맵에 따라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제18회 충청남도 농어촌발전상 시상

- 대상에 수산분야 편현숙 씨 등 11명 수상



제18회 충청남도 농어촌발전상 시상식이 12월 7일 오후 도청 대회의실에서 안희정 충남지사를 비롯한 수상자 및 수상자 가족, 관련 농어민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이날 수상자중 영광의 ▲대상은 수산분야 편현숙(47세, 보령 오천)씨가 차지했으

며, 분야별 수상자로는 ▲작목부문에서 △식량작물분야 - 최상묵(53세, 당진 우강), △원예특작분야 - 연종흙(71세, 천안 입장), △축산분야 - 김정숙(50세, 부여 석성), △임업분야 - 김영국(55세, 부여 은산)씨가 수상했으며 ▲시책부문에서는 △환경농업분야 - 부여 소부리영농조합법인(대표 이제철), △유통가공분야 - 김용희(60세, 천안 입장), △수출분야 - 서정만(66세, 당진 정미)씨가 수상했다.

그리고 ▲지원기관부문은 공주연기축산업협동조합(조합장 안종화), ▲단체부문은 농촌지도자아산시연합 둔포지회(회장 김도일), ▲특별상은 김완성(60세, 금산 금성) 농가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기념사를 통해 “오늘 상을 받으신 분들은 척박한 현실에 굴하지 않고, 숭한 역경을 이겨내며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열정으로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신 분들이기에 어느 해보다 값지고 의미있는 상”이라고 말했다.

## 충남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조성]행보 본격화

— 국회의원 및 전문가 초청,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조성 추진전략 논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연내 제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충청권에 조성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충청권 3개 시도 및 발전연구원은 12월 3일 고려대 세종캠퍼스 농심국제관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을 위한 충청권 공동포럼”을 열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충청권 조성을

위한 추진전략 마련을 모색했다.

이번 행사에는 안희정 충남도지사, 심대평 국민중심연합 대표,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 유한식 연기군수, 박진도 충남발전연구원장 등 각계인사 200여명이 참석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인사말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조성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최근 정부 및 여당 내에서 세종시 원안 추진으로 과학벨트의 입지를 원점으로 돌아가 공모에 의해 선정하려는 움직임과 관련 세종시 논란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충청권 3개 시도는 머리를 맞대고 치밀한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한남대 강병주 교수는 “현재의 사회구조가 수직적 사회에서 수평적사회로 변화하는 것처럼 집중형 과학연구단지에서 통합형 과학도시로 변화하고 있다.”며, 입지선정에 대한 문제가 많은데 국가과학발전을 위한 객관적인 입지선정은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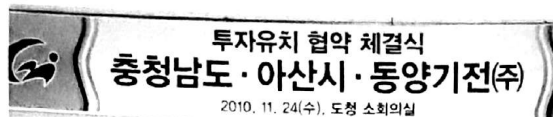
이어, 한남대 조만형 교수는 “국가과학기술의 발전을 먼저 논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이 되었지만, 오히려 충청권 3개 시도가 소지역주의에 빠져있거나 너무 방관적이지 아니었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며 충청권 3개 시도 뿐만 아니라 타 시·도까지 포용하면서 국가 정책을 받아드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제발표에 이어 김용웅 박사(前 충청발전위원장)의 사회로 유환준 충남도의회 부의장, 한양대 김용균 교수, 이상선 분권 균형발전전국회의 공동대표, 오용준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강영주 대전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채성주 충북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앞으로 충청권 3개 시도는 공동포럼을 충북, 대전 순으로 개최할 계획이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충청권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은 물론, 충청권 민·관·정정이 참여하는 추진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공동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 충남도, 동양기전(주)과 투자협약 체결

- 차세대 유망 자동차부품(자동차용 DC모터) 업종 아산에 유치



충남도가 차세대 유망 자동차 부품업체를 유치했다.



안희정 충남지사, 복기왕 아산시장, 양재하 동양기전(주) 대표이사는 11월 24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아산 도고농공단지 내 39천㎡에 자동차용 DC(Direct Current) 모터공장을 이전 투자하는 협약(MOU)을 체결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금번 투자협약으로 동양기전(주)는 2014년까지 340억원을 투자하여 고용 500명, 3천억원 이상의 매출을 목표로 아산 도고농공단지 내 확보부지에 자동차부품 생산라인을 건설하게 된다.

충남발전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MOU체결로 연관 산업과 연계해 볼 때 향후 5년간 충남도에 1천억원의 생산유발과 500여명 고용창출, 400여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으며, 차세대 유망 자동차 부품업종 유치로 관련업종 산업집적과 함께 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날 협약식에서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우리 도의 전략산업인 자동차 부품 유망기업인 동양기전(주)의 도내 입지를 환영하며, 동양기전(주)가 대한민국 대표 자동차 부품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충청남도 내년도 예산안 4조5,336억원 의회제출

- 재정건전성 기조유지, 복지·환경·농림분야 중점편성

○ 충청남도는 민선 5기 출범 첫해인 2011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였다.  
- 충남도 재정의 전체규모는 전년 대비 6.9%인 2,921억원이 증가(4조2,413억원→4조5,334억  
원)한 4조5,336억원으로 나타났다.

- 회계별로는

- 일반회계 3조5,828억원(33,427 35,828), 전년대비 2,401억원/7.2%증가
- 특별회계 6,348억원(5,808 6,348), 전년대비 540억원/9.3%증가
- 기금운용 3,160억원(3,178 3,160)은 18억원/0.6% 감소하였다.

○ 충청남도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안 편성을 위해 지난 7월부터 도민을 대상으로 우편 및 인터넷을 통한 설문, ARS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하였고, 특히 지난 10월 20일 전국 최초 선진국형 Town Hall Meeting 형태의 제1차 충남도민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민선5기에 중점 추진해나갈 10대 시책사업을 선정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였다.

○ 충남도의 내년도 예산안 특징으로는

- ① 민선 5기 출범 첫해로 지방채 발행이 없는 예산을 편성하여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유지하여 재정건전성확보에 주력하였다는 점이다. 대규모 투자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도청사 신축에 따른 세출수요를 국비확보를 통해 충당한다는 배수의 진을 친 결과로 마지막까지 국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 ② 또한 도정여론조사, 도민참여 전략회의 및 참여 소통위원회·농수산혁신위원회 구성·운영 예산 등 민선 5기의 화두인 “참여와 소통”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다는 점이다.
- ③ 민선 5기 7대 도정역점과제 시책사업에 대한 예산을 중점 반영하여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 도정 7대 역점과제 분야별 예산반영 현황으로는

- ① 소통과 신뢰의 지방행정 구현 : 1,425억원(4.7%)  
- 낙후지역균형발전지원사업 534, 소규모주민숙원사업 127, 도서종합개발 89, 소도읍 육성 79 등
- ② 21세기 혁신 농수산업 실현 : 6,825억원(22.3%)  
- 쌀 소득 등 보전직불사업 1,112, 친환경농업기반조성 421, 산림자원육성 538, 원예특작생산기반시설확충 319 등
- ③ 균형있고 내실있는 충남 경제 육성 : 1,767억원(5.8%)  
- 지방산단 공업용수 건설 436, 기업이전보조금 259, 전통시장 시설 및 경영현대화 107, 2011금산세계인산엑스포 76 등
- ④ 평생을 책임지는 행복교육 실현 : 212억원(0.7%)  
- 초중학교 무상급식 75, 농어촌방과 후 영어학교 19, 혁신형 행복학교 4, 전문계고 해외 인턴십 3 등
- ⑤ 선진국형 맞춤복지 · 환경실현 : 13,260억원(43.4%)  
- 기초노령연금 1,912, 기초생활보장급여 1,728, 영유아 보육료 지원 1,079, 농어촌하수도 관리 등 2,316, 농어촌상수도관리 등 395, 만5세아 무상보육료 17, 아동희망프로젝트 264 등
- ⑥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충남 : 1,473억원(4.8%)  
-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보수정비 166, 백제문화권유적정비 및 고도보존육성 127, 공립예술단운영 50, 문화예술진흥 63 등
- ⑦ 사람중심 생활환경 조성 : 5,599억원(18.3%)  
- 지방도안전관리 459, 수해상습지개선 424, 재해위험지구정비 461, 국지도확포장 413, 도청 및 의회청사신축 · 진입도로 783 등

○ 내년도 예산안은 도정역점과제별 균형있는 자원배분으로 민선5기 도정의 기초를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행정운영경비 등 경상경비는 금년수준으로 동결하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안정성 확보에 노력하였다고 밝혔다.



# 오늘 하루 당신이 충남도지사입니다

- [제1차 충남도민 정상회의]를 통하여 도민의 힘을 직접 체험



충남도는 10월 20일 롯데 부여리조트에서 지방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선진국형 주민참여방식인 “21세기 타운홀 미팅” 형태의 [제1차 충남도민 정상회의]를 개최하였다.

충남도가 주최하고 충남발전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제1차 충남도민 정상회의에는 지역주민 115명, 정당인 49명, 시민단체 55명, 직능단체 56명, 전문가 50명, 도·시군 공무원 48명 등 각계각층의 도민 총 373명이 참여하였다.

참여인원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 8명(2.1%), 30대 49명(13.1%), 40대 138명(37.0%), 50대 128명(34.3%), 60대 이상 50명(13.4%), 성별로는 남성 298명(79.9%), 여성 75명(20.1%)이다.

정상회의는 10시부터 16시까지 전자투표 방식으로 1차에서 3차 회의로 진행되었는데 1차 회의에서는 민선5기 도정환경에 대한 공감도와 도정추진의 우선 고려요인을 평가하고 도정의 8개 분야 59개 과제 169개 시책에 대하여 분야별로 3개씩 총 24개의 전략과제를 선정하였다.





---

이어 진행된 2차 회의에서는 사전 주민 여론조사 결과 발표와 분야별 우선과제를 중심으로 한 10대 핵심과제를 평가하고 3차 회의에서는 10대 핵심과제 결과발표 및 과제이행을 위한 행동대안과 이해관계자별 행동대안을 제시하고 도지사가 회의결과에 대한 마무리 발언을 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지방자치 발전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실험이 시도 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소통과 참여를 위해 이번과 같은 도민회의를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충남 지역산업 육성을 통한 내생적 발전 토대 구축해야



최근 중앙정부가 내생적 지역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지역산업 육성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충남발전연구원은 12월 2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각계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그리고 충남연 연구진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생적 지역발전과 지역산업의 육성전략”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주제발표에 나선 단국대학교 김태연 교수는 기존 지역발전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1990년대 후반부터 유럽의 농촌지역발전정책으로 제기되었던 신내생적 발전의 특징을 우리나라에 접목하기 위해서는 가족사업체 및 사업네트워크의 육성, 지역정체성의 확립, 그리고 학습지역의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 황종환 이사장은 “충남의 향토자원은 총 599건으로, 이중 자연자원은 277건, 인적자원은 43건, 기술자원 51건, 작품자원 72건, 특산물자원 156건 등으로 구분되며, 이는 산업·문화·복지·교육적 측면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향토자원의 발전을 위해 향토자원 지식보유자와 지식수혜자를 연결할 수 있는 지식전문위탁관리기관 및 오픈마켓 운영, 그리고 향토자원지식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최근 중앙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역산업 지원정책의 재편 방향에 대해 발표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오은주 박사는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을 집중성과 파급효과, 그리고 전략성이라는 관점에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역특화산업을 산업도시형, 종합

도시형, 농공복합형, 그리고 농산어촌형 등으로 구분하여 전략의 차별화와 더불어 지역산업진흥종합계획 수립과 전문가 컨설팅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날 세미나에는 목원대학교 박경 교수의 진행으로 청운대학교 김동청 교수, 충남대학교 안기돈 교수, 충남테크노파크 한무호 지역산업평가단장, 충남도청 윤호익 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지역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정책적·학술적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의 자리도 마련되었다.

특히 토론자로 나선 충남발전연구원 이관률 박사는 “지역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시장성과 산업적 파급성에 기반한 지역산업의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역산업과 농업클러스터의 접목, 지역산업육성조례 제정, 지역산업의 기업화지원체제 구축,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양성 및 네트워크 활성화 등이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 천수만 국제관광휴양도시 조성 준비 박차

-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특화된 브랜드 전략 강조



충남도는 충남발전연구원(원장 박진도)과 함께 10월 29일 대전스파피아호텔에서 대학 교수 및 전문가, 충남연 연구진, 도와 시·군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수만 국제관광휴양도시 건설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세미나”를 가졌다.

이번 세미나는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한 천수만 중심의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서산 바이오웰빙특구, 관광지 7개소, 관광자원 개발계획 10개소 등 총 12조 8천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건설사업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자리였다.

주제발표에 나선 경동기술공사 박찬일 전무이사는 “천수만 권역은 태안, 보령, 서산, 홍성 등 4개 시군이 접해 있고, 중국을 중심으로 한 주요 도시와 가까운 지역으로써 충남도와 서해안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천수만 지역으로의 접근성 문제, 다양한 관광기능의 혼재, 계절적 관광성향 등을 해결하기 위해 천수만 지역의 특화된 브랜드 개발과 환경친화적 관광기반 구축을 중심으로 지역과의 연계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양대학교 지진호 교수는 “동북아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1995년도에 41백만명으로 전세계 관광객의 7.8%였으나 2010년 104백만명으로 10.5%, 2020년엔 216백만명인 14.4%로 늘어날 전망”이라면서 “천수만 지역 역시 관광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한 특화된 관광상품 개발 및

---

스토리텔링을 통한 관광자원화와 고유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일종합기술공사 이대구 부사장 역시 “천수만 지역은 첨단산업레저형 기업도시와 웰빙특구 등 대규모 개발이 추진중”이라면서 “국제적 관광휴양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체류형 관광지, 서해안 관광의 거점 기능 및 주변 지역과의 연계, 천수만 관광 브랜드화 등의 추진 전략에 중점을 뒀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서는 충남발전연구원 이인배 연구실장의 주재로 배재대 박근수 교수, 청양대학 최영문 교수, 그리고 충남도 관계관 등이 참석하여 천수만 국제관광휴양도시 건설을 위한 올바른 방향 수립을 위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 충남발전연구, 청양 꽃뫼영농조합법인과 업무협약 체결

- 고추대 뽑기 등 농촌봉사활동으로 연구생활에도 활기



충남발전연구원(원장 박진도)과 청양 꽃뫼영농조합법인(대표 이춘복)은 10월 22일 청양군 장평면 화산리에 위치한 '꽃뫼마을'에서 연구원 관계자, 마을이장과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마을 경쟁력 강화와 상호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실 충발연은 지난 2007년 3월 꽃뫼마을과 자매결연을 맺은 인연으로 매년 봄에 열리는 '맥문동 축제'에 맞춰 이곳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특산물 등을 구매해 왔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담긴 ▲농촌마을 및 산업체 등의 교육 및 컨설팅과 정보 공유, ▲농촌 네트워크 구축, ▲공동연구개발 및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활발한 협력관계를 갖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꽃뫼마을을 함께 찾은 충발연 임직원 60여명은 고추대 뽑기, 은행털기, 밤 줍기 등 봉사의 땀을 쏟으며 농촌 일손 돕기에 나섰다.

충발연 고승희 박사는 "잠시 농촌 일손을 도왔다고 해서 농촌의 현실을 이해했다고 말할 수 없지만 부모님같은 어르신을 위해 땀 흘리는 것만큼 보람된 일도 없다."고 말했다.



##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효율적 시행방향" 워크숍 개최

-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보교류의 기회 마련



충청남도수질총량관리센터에서는 2011년부터 시작되는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원활한 추진에 대한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10월 20일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효율적 시행방향"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날 워크숍에는 충청남도, 9개 시·군 총량제 담당자, 충청남도수질총량관리센터

등 관련자 25명이 참석하였으며, 충청남도 안대현 박사의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개정(안) 설명"과 김영일 수질총량관리센터장의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추진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주요내용은 중앙정부(환경부)에서 개정중인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변동사항 및 제도개선과 관련된 충청남도의 종합의견, 2011년부터 시작되는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주요 변동사항에 따른 시·군 차원의 준비사항 등에 대한 내용이었으며, 시·군 총량제 담당자들은 발표내용에 대한 많은 관심 뿐만 아니라 열띤 질의와 토론도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하여 충청남도수질총량관리센터에서는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추진하는데 있어 해당 시·군 담당자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 제2회 2010충남공공디자인대전 개최



지난 2010년 11월 16일 제2회 충남공공디자인대전이 충남 공주시 디자인카페에서 진행되었다. 충남공공디자인대전은 2010년 7월 9일 공모전 발족을 위한 첫 회의를 시작으로 총 8차례 정기회의의 진행과 협의를 하였고, 행사의 원활한 진행과 홍보 그리고 대내외적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총 18명의 추진위원을 위촉, 추진회를 구성하였고, 약 3개월에 걸친 홍보활동과 3주 동

안 두 차례에 걸친 접수와 공정한 심사를 통하여 최종 수상작들이 선정되었다.

총 응모작품수 236점 중에서 1차 심사결과 70점이 통과하였고, 2차 심사를 통하여 대상 1점 금상2점 동상 3점등 총 64점이 선정되었다. 영예의 대상은 건양대학교 인테리어학과 3학년 유민지, 강혜림 팀의 '공주, 백제로 물들다'가 선정되어 부상으로 500만원이 수여되었다.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준비 되었고, 사실상 첫 회인 전국단위의 공모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236점이라는 많은 작품이 접수 되었을 뿐 만 아니라, 충청남도에서 추진하고 충남발전연구원 공공디자인클리닉센터에서 주관하는 이번 공모전에서 공주시의 적극적인 협조 및 관심으로 공동 주최하게 되었고, 이에 공주시 디자인카페 및 문화원의 지원으로 원활한 행사에 도움이 되었으며, 충남을 대표하는 옛 고도 공주시의 유구한 역사와 백제의 문화는 충남도를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앞으로도 이어질 충남공공디자인대전을 통하여 충남도민에 공공디자인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도록 하며, 충청남도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앞장서도록 할 것이다.